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SESSION

1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2013 기빙인덱스와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연구자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신학 전공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최근 주요 경력

- 2013.~현재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이사
- 2011.~현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 2003.~현재 중부재단 이사
- 2009.~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연구실적

- 2014.5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 전략-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 2013.1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종교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3.11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8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5 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현장실험 연구 -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기부, 연세대학교
- 2012.9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 한국사회정책
- 2013.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3 Giving Korea 조사결과: 통계청 나눔통계결과와의 비교

2014년 10월 23일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I . 2013 Giving Index

2013 Giving Index 조사개요



조사 개요

•조사설계

모 집 단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 본 수	1,007명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4. 6. 27 - 8. 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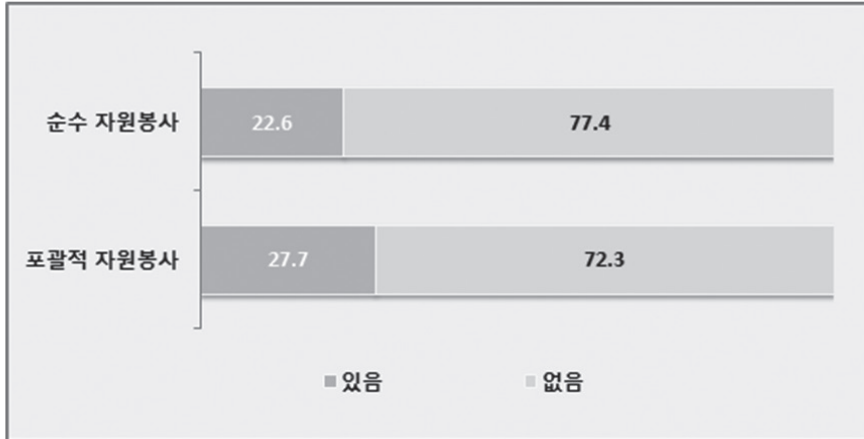
I . 2013 Giving Index

자원봉사 (Secular & Religious Volunt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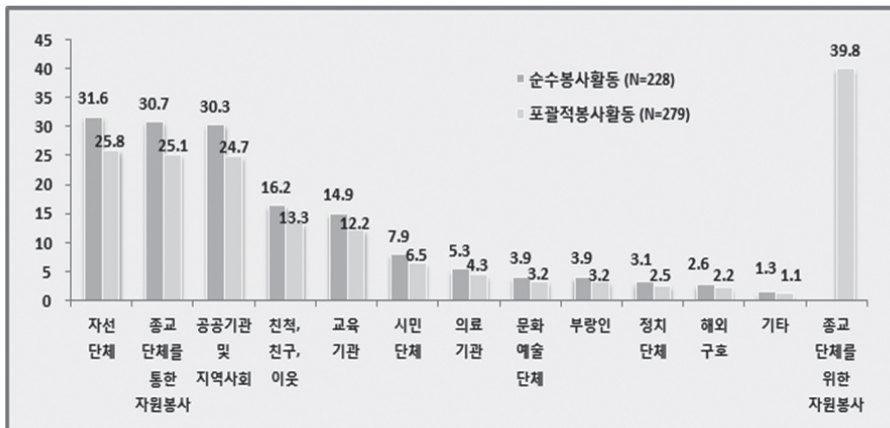
1-1. 자원봉사 참여 여부

- 22.6%가 일반 자원봉사에 참여 (2011년 26.5%에 비해 3.9%p 감소).
- 종교단체에서의 자원봉사까지 포함할 경우 27.7%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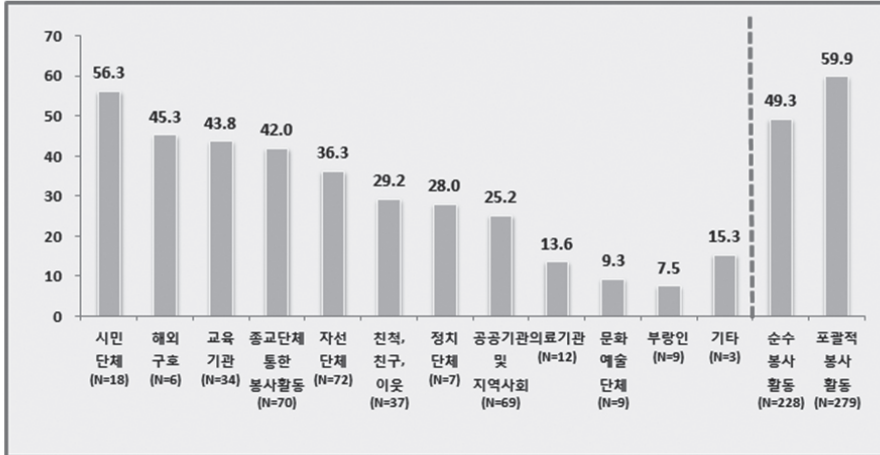
1-2. 자원봉사 활동처

- 순수(Secular)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는 자선단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30.7%),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30.3%), 친척/친구/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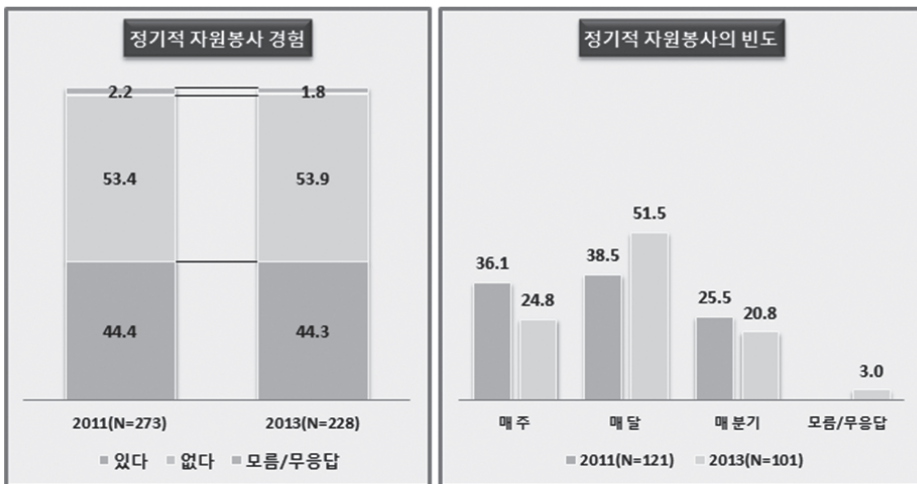
1-3. 자원봉사 시간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49.3시간,
포괄적(Secular & religious)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59.9시간.
- 자원봉사 활동처별로는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시간이 56.3시간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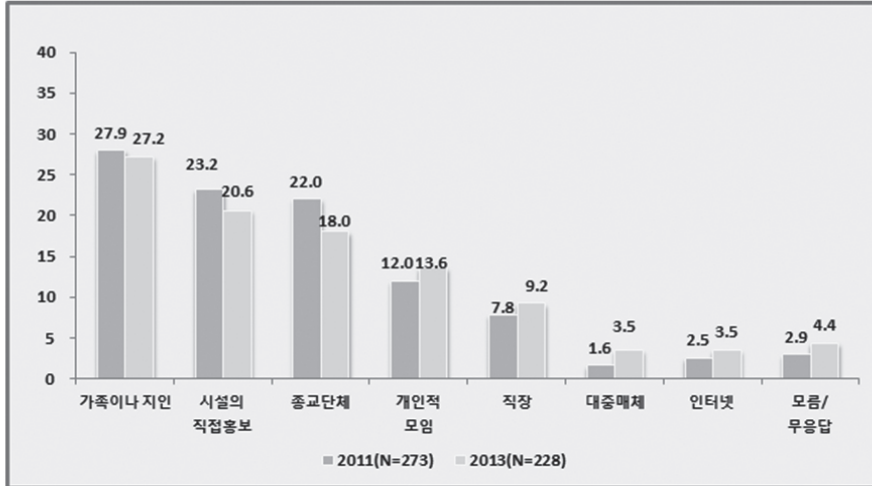
1-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 순수자원봉사 참여자 중 44.3%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음. 이는 2011년 결과와 비슷함.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이들 중 51.5%는 매 달, 24.8%는 매 주, 20.8%는 매 분기마다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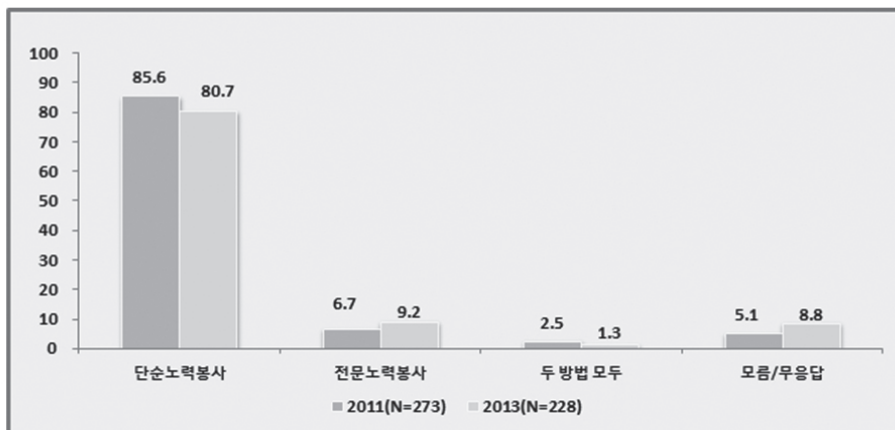
1-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 자원봉사단체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가족 및 지인, 자원봉사단체의 직접홍보, 종교단체가 중요한 인지경로로 나타남.
- 가족 및 지인, 개인적 모임이 (40.8%)로 개인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인지됨.



1-6. 자원봉사 활동 방법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노력봉사가 80.7%로 가장 많음.
- 2011년에 비해 단순노력봉사 형태의 봉사활동이 감소하고(4.9%p감소) 전문노력봉사 형태의 봉사활동이 다소 증가함(2.5%p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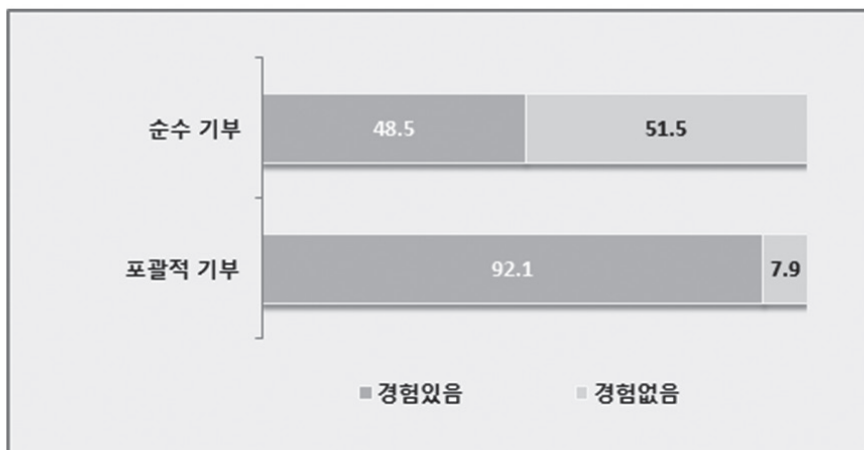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기부 (Secular Giving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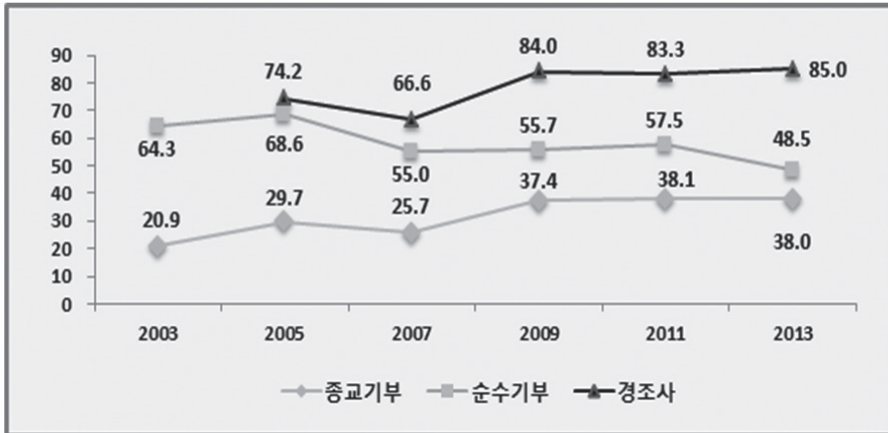
2-1. 기부 참여 여부

- 응답자의 48.5%가 순수한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 참여함.
-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와 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비, mutual aid giving)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에는 92.1%가 참여함.



2-2. 기부 참여 여부 변화 추이

- 순수기부 참여율은 2011년에 비해 9.0%p 감소함.
- 종교기부 참여율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조사비 참여율은 1.7%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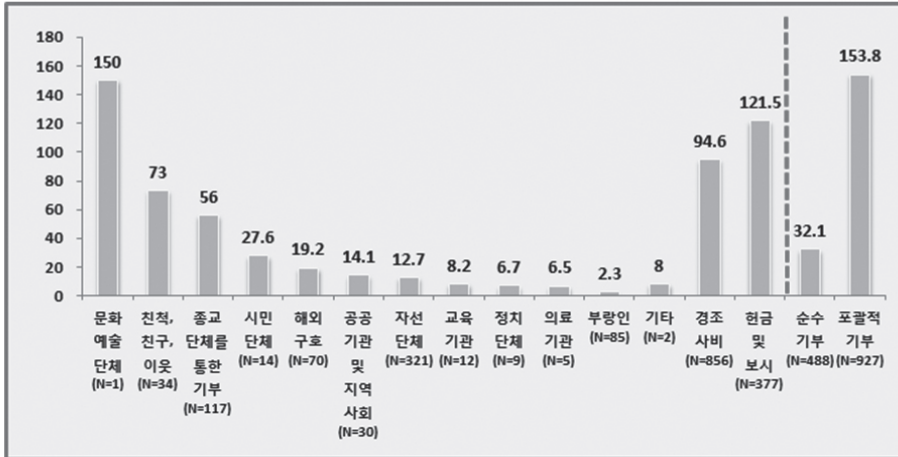
2-3. 기부처

- 순수 기부자의 경우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65.8%),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24.0%), 부랑인(17.4%), 해외구호(14.3%), 친척/친구/이웃(7.0%)을 위한 기부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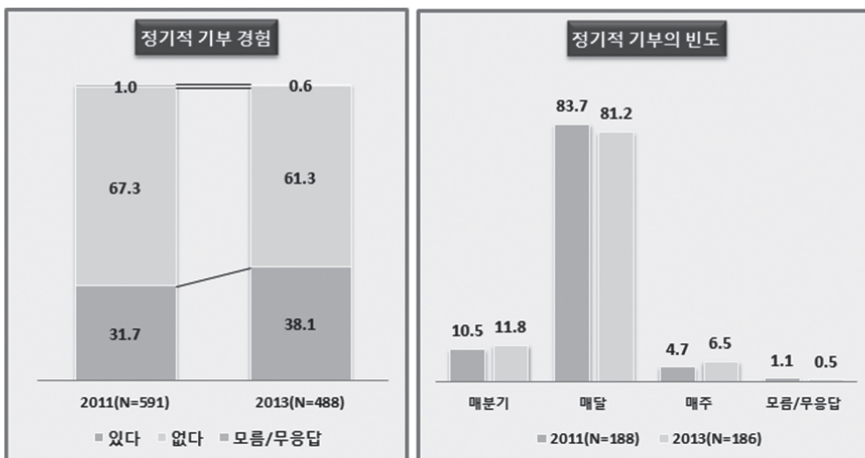
2-4. 기부금액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32만 1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53만 8천원임.
- 경조사비의 평균기부금액은 94만 6천원, 종교기부의 평균기부금액 121만 5천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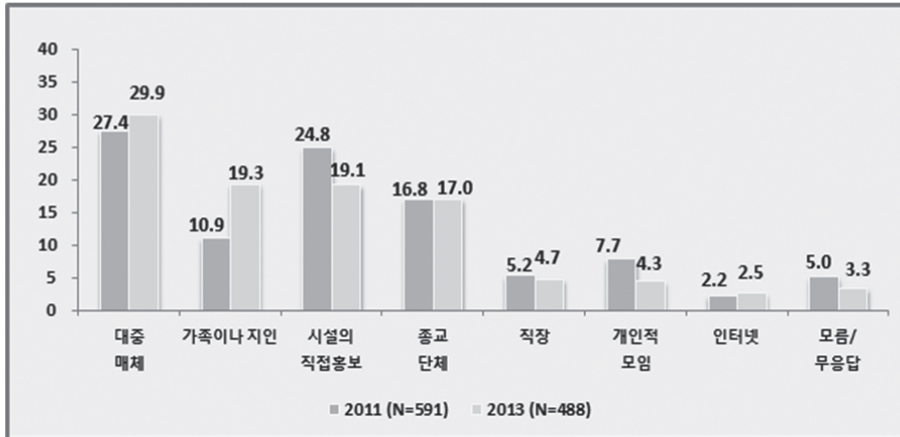
2-5. 정기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 순수 기부자 중 38.1%는 정기적 기부 경험이 있음. 2011년도에 비해 6.4%p 증가함.
- 정기 기부자 중 81.2%가 매 달 기부하고 있으며, 11.8%는 매 분기마다 기부하고 있음. 2011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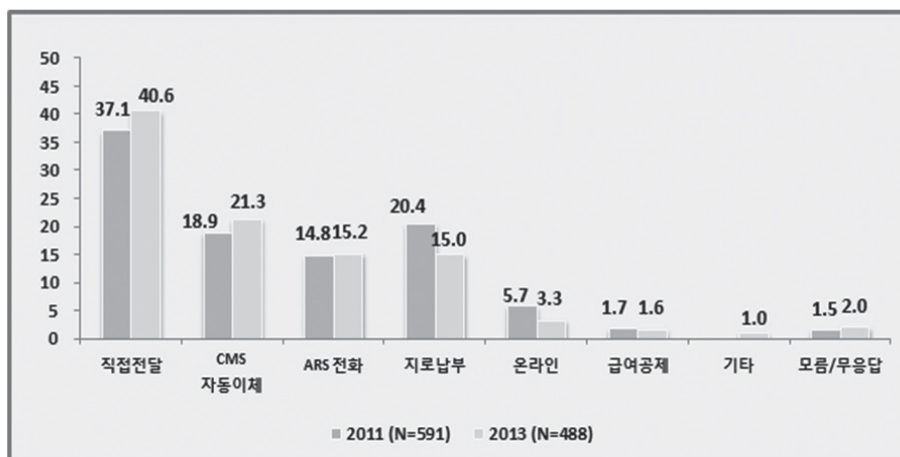
2-6. 기부처 인지 경로

- 기부처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가 29.9%로 가장 높음.
- 2011년에 비해 '가족 및 지인을 통해'라는 응답은 8.4%p 증가하였고, '시설의 직접홍보 및 요청에 의해'라는 응답은 5.7%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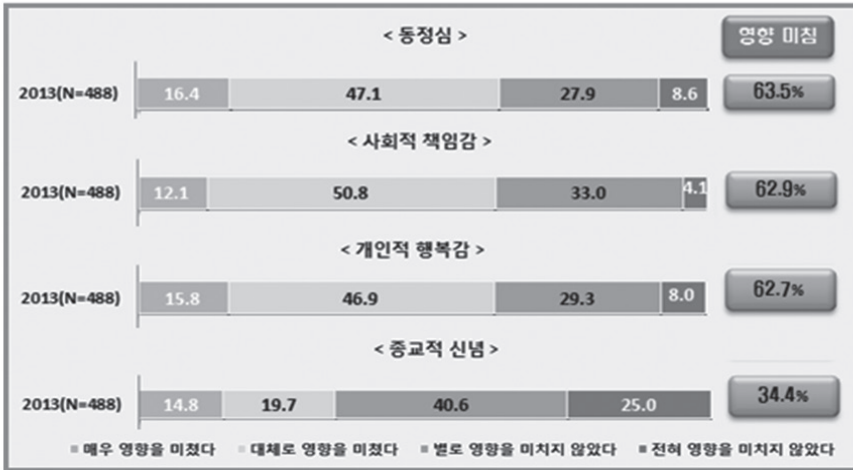
2-7. 기부 방법

-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음.



2-8. 기부의 내적 동기

- 기부의 내적 동기와 관련해서 '동정심'으로부터 비롯된 기부가 가장 많았음.
- 2011년 결과와 비교할 때, 기부의 내적 동기로서 '사회적 책임감'은 증가, '종교적 신념'은 다소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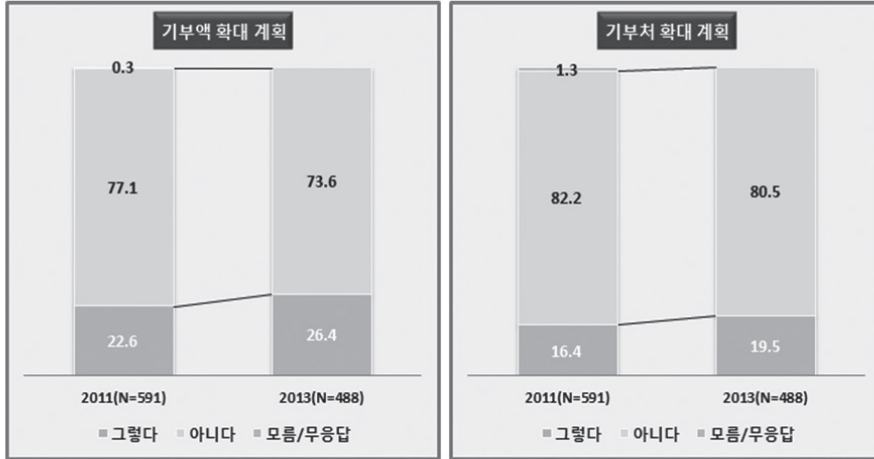
2-9. 기부의 외적 동기

- 기부의 외적 동기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가장 높음.
- 2011년 결과의 비교할 때, 모든 외적 요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증가함.



2-10.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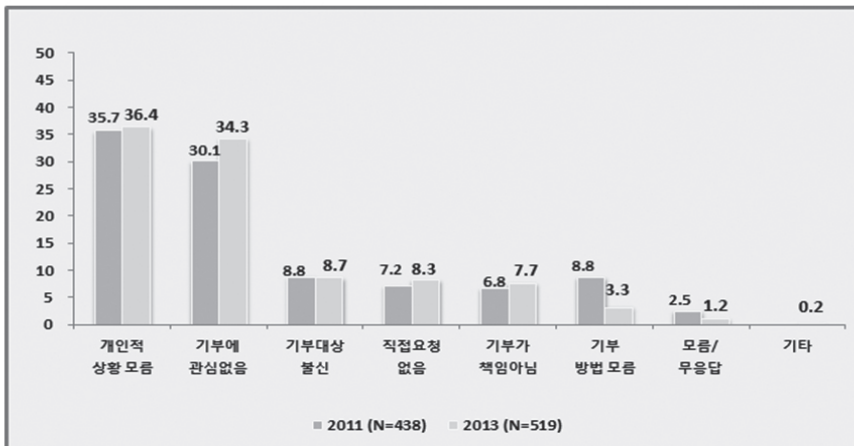
•2011년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기부액 및 기부처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둘 모두에서 다소 증가함.



2-11.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름'과 '기부에 대해 관심 없음'이 주를 이룸.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4.2%p 증가한 반면, '기부방법 모름'은 5.5%p 감소함.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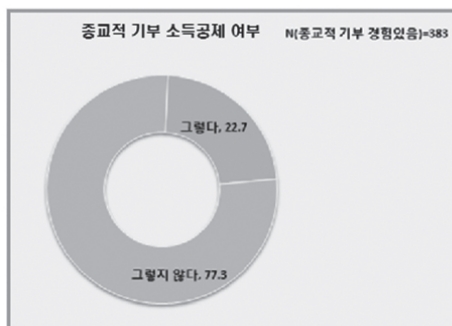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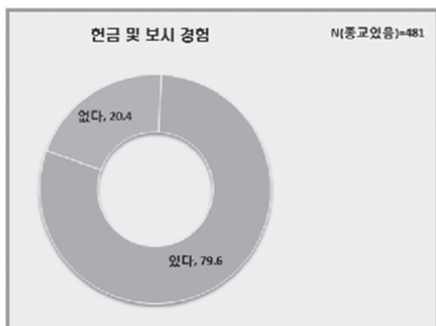
I . 2013 Giving Index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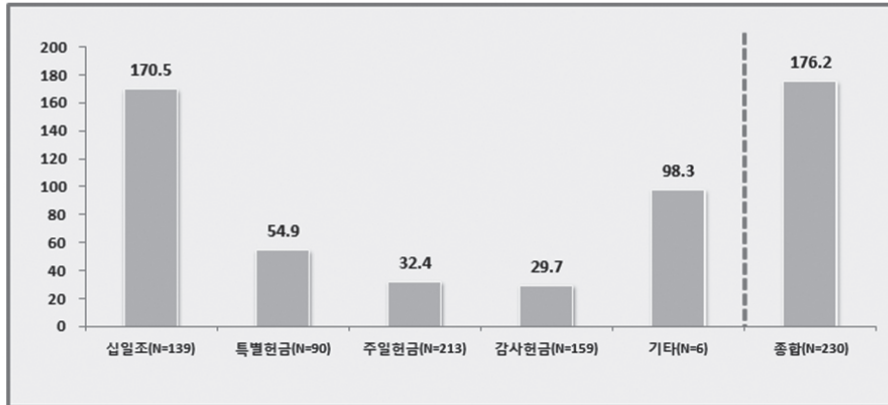
3-1. 종교적 기부 (헌금 및 보시) 경험 및 소득공제 여부

- 종교가 있는 사람 중 10명 중 8명은 헌금 및 보시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헌금 및 보시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2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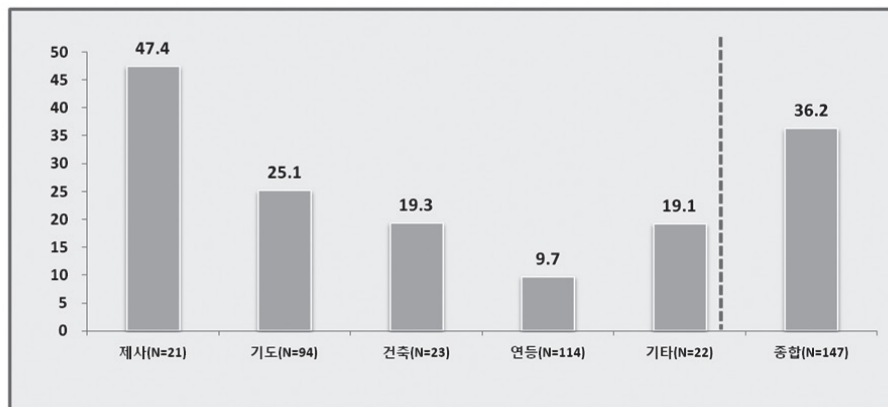
3-2.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금액

- 개신교 및 천주교의 경우, 종교적 기부(헌금)의 평균 금액은 176만 2천원임.
-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은 십일조 항목이 평균 170만 5천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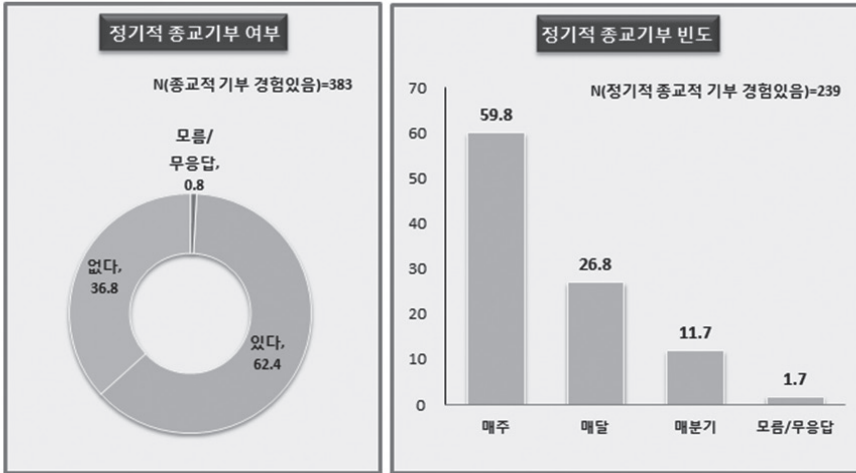
3-3.종교적 기부 (불교) 금액

- 불교의 경우, 종교적 기부(보시)의 평균 금액은 36만 2천원임.
-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은 제사 항목이 47만 4천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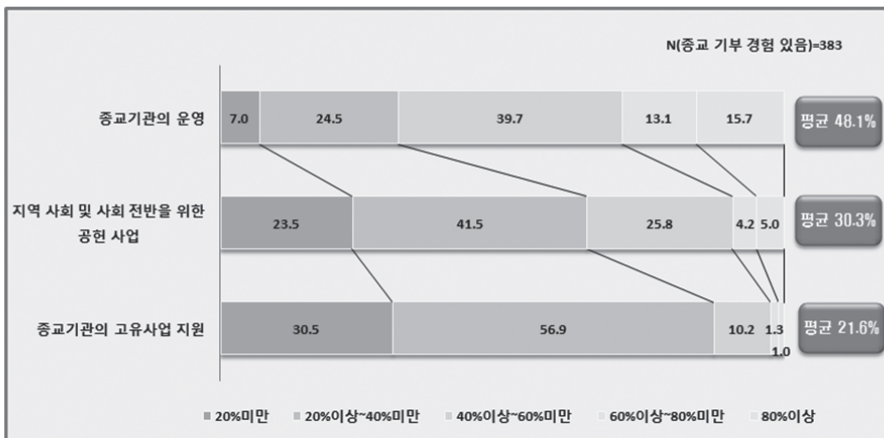
3-4. 정기적 종교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 현금 및 보시를 내는 응답자 중 62.4%는 정기적인 현금 및 보시를 내고 있음.
- 빈도에 대해서 매 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59.8%).



3-5. 종교적 기부의 원하는 사용처

-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8.1%가 현금 및 보시가 종교기관의 운영에 쓰이길 바라고, 30.3%는 사회를 위한 공헌사업, 21.6%는 종교기관의 고유사업지원에 쓰이길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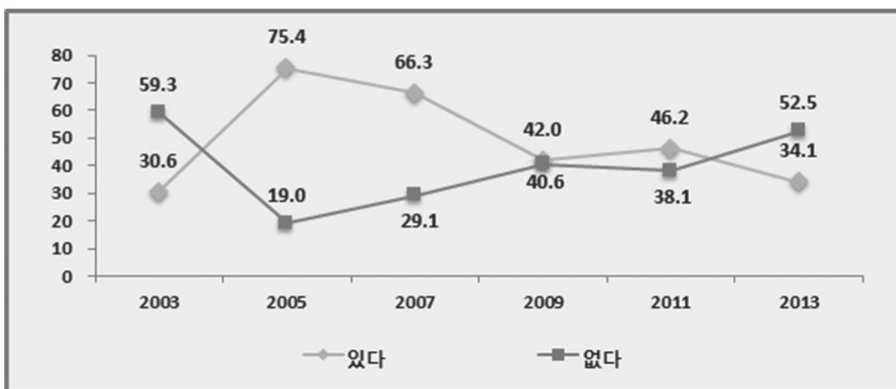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기부의향 및 계획



4-1. 기부 의향 변화 추이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4.1%로 2011년에 비해 12.1%p 감소함.
'없다'는 응답은 52.5%로 2011년에 비해 14.4%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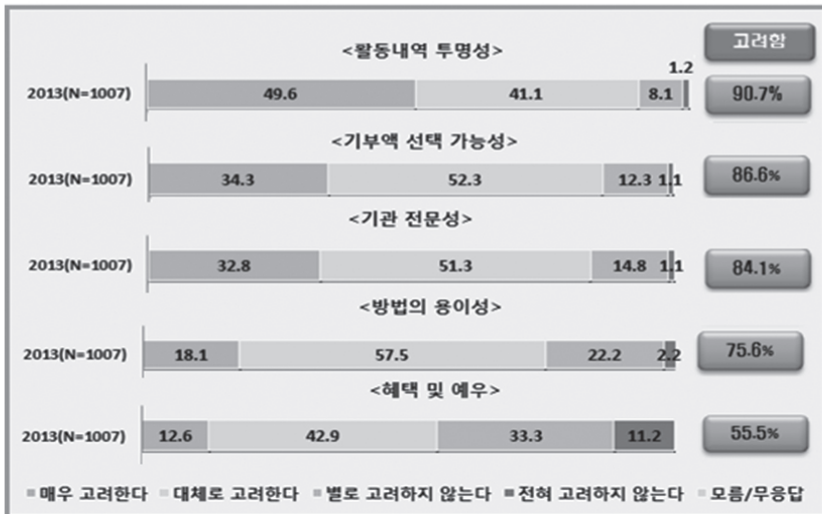
4-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 기부하고자 결정했을 때, 기부 대상(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89.6%로 가장 높음.
- 아울러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성, 기부기관의 사회적 명성, 기부를 통한 사회 개선 효과 순으로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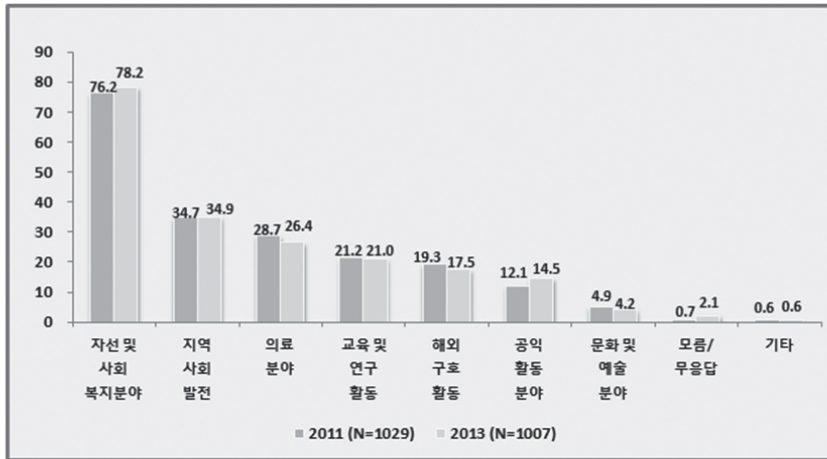
4-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기관을 통해 기부하고자 할 때, '기관의 기부금 사용 및 활동이 투명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90.7%).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주로 고려함.
- '기부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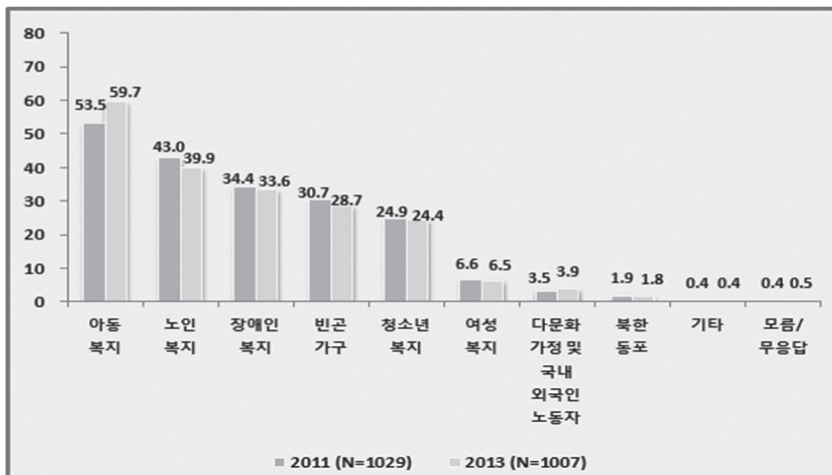
4-4.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로는 여전히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가 78.2%로 가장 높음.
- 지역사회발전, 의료분야, 교육 및 연구활동, 해외구호활동 등이 뒤를 이음.



4-5.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이 59.7%로 가장 높고, 노인, 장애인, 빈곤가구, 청소년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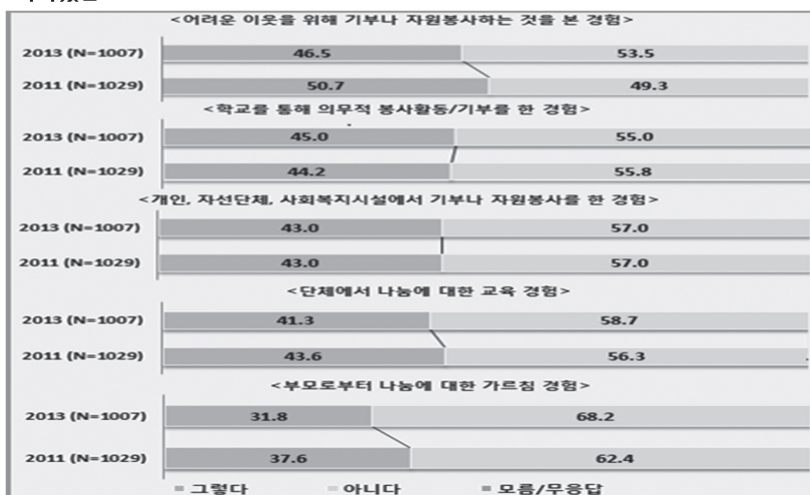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나눔교육과 사회자본



5-1. 나눔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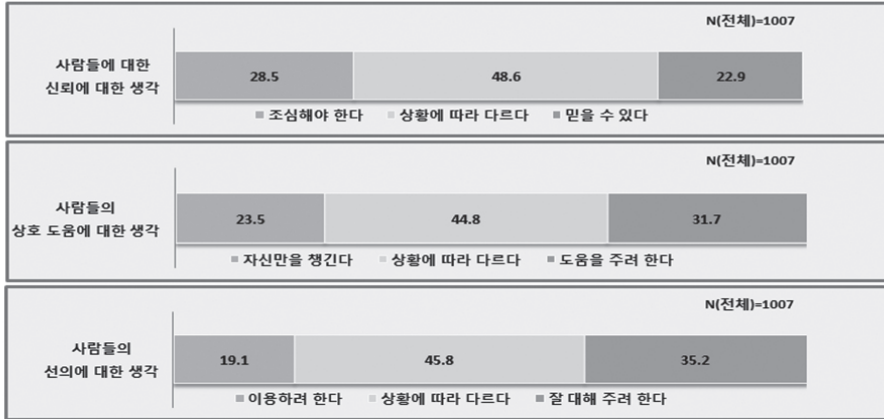
-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의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본 적이 있음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눔 교육 경험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5-2. 사회적 자본 (신뢰)

•신뢰와 관련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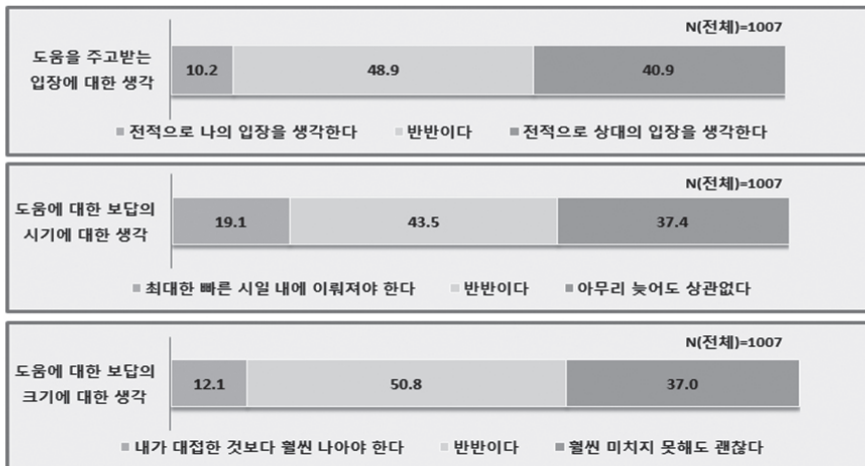
-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믿을 수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더 높음.
-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는 응답보다 8.2%p 더 높음.
- 또한 자신에게 잘 대해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응답보다 16.1%p 더 높음.



5-3. 사회적 자본 (호혜성)

•호혜성과 관련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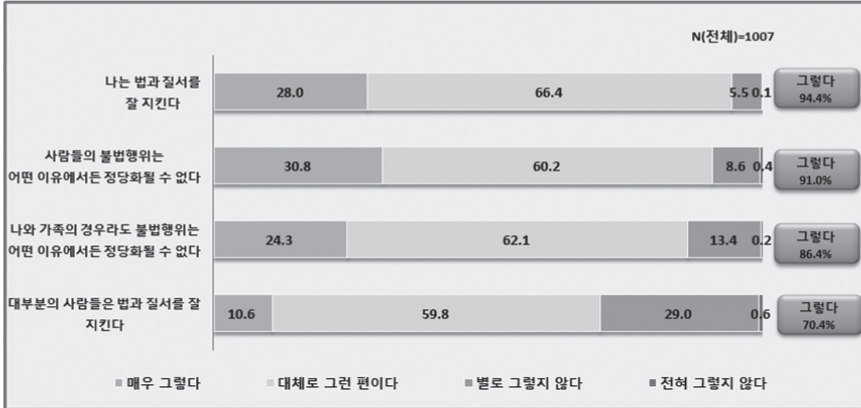
-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을 더 생각함.
- 내가 준 도움에 대해 보답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보다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 내가 준 도움보다 상대의 보답이 더 커야 한다기보다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함.



5-4. 사회적 자본 (규범)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과 관련

-나의 규범 준수에 대해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4.4%로 매우 높은 편이나 타인의 규범준수에 대해서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0.4%로 큰 차이가 있음.
- '다른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1.0%로 매우 높은 편이나 '나와 가족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6.4% 상대적으로 낮음.



II.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

1.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조사개요

2.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과 비교

3.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추정 비교



1.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조사개요

구 분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조사시기	2014년 7월	2013년 5월
대상시기	2013년 1월~12월 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2012년5월11일~2013년 5월 10 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대상지역	전국구	전국구
대상인원	1,007명	37,648명 (17,664가구)
대상연령	19세 이상	13세 이상
조사항목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 현금, 현물 (현물기부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사)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 현금, 현물 (단,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횡수만 조사)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시간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시간
	종교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X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금액	X

2.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과 비교

구 분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대상에 대해서만)
기부참여율	48.5%	34.9%
국민1인당 평균기부금액 (‘현금’기부만 포함)	약 14만7천원	약 6만9천원
자원봉사참여율	22.6%	13%
국민1인당 평균자원봉사시간	약 10.9시간	약4시간

⇒ 전체적으로 기빙인덱스가 모든 항목에서 보다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조사에서 13세~18세를 포함시킬 경우에도 기빙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참여 경향을 보임.

3-1.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현금기부참여여부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 (현금기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V 가구원수		-	x	-	O
V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x	+	O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자영업	+	x	-	O
	학생,주부,무직 등	-	x	-	O
결혼 (미혼=0, 기혼=1)		+	O	+	O
나이		+	O	+	O
V 성별 (여=0, 남=1)		-	x	-	O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	O	+	O
	전문대제이상	+	O	+	O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V100~200만원	+	x	+	O
	200~300만원	+	O	+	O
	300~400만원	+	O	+	O
	400~500만원	+	O	+	O
	500만원 이상~	+	O	+	O

⇒ 참여여부에서 결혼, 나이, 교육, 소득에서는 같은 방향이고 두 자료간 차이도 없으나, 네 개 변수(가구원수, 지역, 직업, 성별) 및 월평균가구소득의 한 범주(100~200만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2.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현금기부금액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 (현금기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V 가구원수		-	x	-	O
V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x	+	O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자영업	-	x	-	O
	학생,주부,무직 등	-	x	-	O
결혼 (미혼=0, 기혼=1)		+	O	+	O
나이		+	O	+	O
V 성별 (여=0, 남=1)		+	x	-	O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	O	+	O
	전문대제이상	+	O	+	O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V100~200만원	+	x	+	O
	200~300만원	+	O	+	O
	300~400만원	+	O	+	O
	400~500만원	+	O	+	O
	500만원 이상~	+	O	+	O

⇒ 기부금액에서는 네 개 변수(가구원수, 지역, 직업, 성별) 및 월평균가구소득의 한 범주(100~2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 나이, 교육, 소득의 효과는 동일함.

3-3.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가구원수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O	+	O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자영업	-	x	+	O
	학생, 주부, 무직 등	+	x	-	O
V 결혼 (미혼=0, 기혼=1)		-	O	+	x
V 나이		+	O	-	x
V 성별 (여=0, 남=1)		+	x	-	O
교육 (ref. 중졸이하)	V 고졸	+	x	+	O
	전문대제이상	+	O	+	O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100~200만원	+	O	+	O
	200~300만원	+	O	+	O
	300~400만원	+	O	+	O
	V 400~500만원	+	x	+	O
	500만원 이상~	+	O	+	O

⇒ 참여여부에서는 네 개 변수(직업, 결혼, 나이, 성별) 및 두 변수의 하위 범주 중 교육(고졸) 및 월평균가구소득(400~5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시간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가구원수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O	-	O
직업 (ref. 임금근로자)	V 자영업	-	x	+	O
	학생, 주부, 무직 등	+	O	-	O
V 결혼 (미혼=0, 기혼=1)		-	O	+	x
V 나이		+	O	-	x
V 성별 (여=0, 남=1)		+	x	-	O
교육 (ref. 중졸이하)	V 고졸	+	x	+	O
	전문대제이상	+	O	+	O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100~200만원	+	O	+	O
	200~300만원	+	O	+	O
	V 300~400만원	+	x	+	O
	V 400~500만원	+	x	+	O
	500만원 이상~	+	O	+	O

⇒ 자원봉사참여시간에서는 세 변수(결혼, 나이, 성별) 및 세 변수의 하위 범주 중 직업(자영업), 교육(고졸), 월평균가구소득(300~400만원과 400~5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요약 및 결론

첫째, 경제적 영향의 여파로 나눔의 저변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전반적으로 나눔 참여에의 저변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성은 있으나, 참여강도의 부분(정기성 및 금액과 시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셋째, 자선적 나눔에서는 저변 축소의 경향성이 있으나, 종교적 나눔과 상호부조 등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음.

넷째, 기빙코리아의 조사결과와 사회조사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두 가지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첫째는 조사의 속성(*generalist survey vs. specialist survey*)과 큰 관련이 있음.

둘째는 조사규모의 차이(조사대상 인원 및 연령에 따른 포괄성)와도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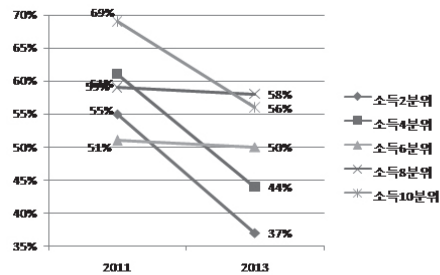
다섯째, 기본적으로 나눔 행동과 관련해서 결혼(+), 나이(+), 교육(+),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여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나눔 사회로의 진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은 경제상황 및 *major giving*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됨.

소득수준별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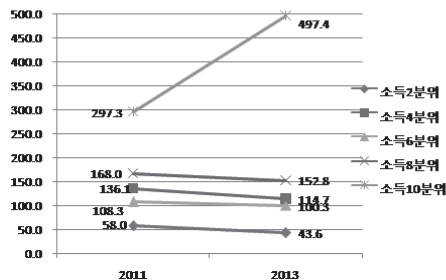
1)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참여율 변화

기부참여율	2011	2013	2011->2013
소득2분위	55%	37%	-18%P
소득4분위	61%	44%	-17%P
소득6분위	51%	50%	-1%P
소득8분위	59%	58%	-1%P
소득10분위	69%	56%	-13%P



2)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단위:천원

기부금액	2011	2013	2011->2013
소득2분위	58.0	43.6	-14.4
소득4분위	136.1	114.7	-21.3
소득6분위	108.3	100.3	-8.0
소득8분위	168.0	152.8	-15.2
소득10분위	297.3	497.4	200.1



*소득수준구분- 국가통계포털 가구소득 10분위

정기/비정기 기부자의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 비교

- 2011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기부자 중 정기기부자의 참여비율이 6.4%p 증가함.
- 정기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또한 2013년 62만5천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9만5천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